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

남재량(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)

⊙ 7월 취업자 수가 50만 5천 명 증가(전년동월대비)하여, 5월과 6월 들어 다소 둔화되는 듯하였으나 다시 고용호조세를 회복

- 좀 더 멀리 보면, 취업자 증가가 2013년 2월(20만 1천 명 증가)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올 해 1분기의 이례적인 고용성과 이후 세월호 여파 등으로 5~6월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가 7월 들어 회복
- 최근의 고용성과를 실현케 한 대부분의 요인들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7월의 임시직 증가가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
- 5~6월의 고용증가세 둔화가 초래된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나, 세월호 참사의 여파를 포함한 내수부진과 최근 금융산업 부진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
- 고용률은 61.1%로 전년동월대비 0.7%포인트 증가하였고(15~64세 고용률은 66.0%로 0.9%포인트 상승), 2013년 초반 이후 계속되었던 고용률 증가폭 확대 추세가 2014년 들어 둔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, 7월 들어 다시 회복
- 실업자 수는 91만 2천 명으로 8만 4천 명 증가하였고 실업률도 0.3%포인트 상승하여 실업자 증가 및 실업률 상승이 8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는데, 이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(20만 7천 명 감소, 증가율 -1.3%) 등을 감안할 때, 노동시장 여건 개선을 주로 반영

⊙ 이러한 7월의 취업자 증가폭 회복은 최근의 고용호조세 지속을 가능케 하였던 요인들 가운데 상당 부분들이 회복된 데에 주로 기인

- 최근의 고용호조세 지속을 가능케 하였던 요인들은 (1)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들, (2) 최근에 나타난 고용동향상의 새로운 요인들의 지속, (3)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증가, (4) 기저효과, 그리고 (5) 기타의 요인들
- (1) 장기·구조적 측면 : 상용직의 지속적인 증가 및 50세 이상 연령층 고용증가 지속
  ※ 다만 최근 5개월여 기간 동안 상용직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며, 임시직이 증가하기 시작
- (2) 최근 특징 : 중소규모 사업체, 서비스업, 여성 위주의 고용성장
- (3) 경기회복 : 서비스업 임시직 등의 고용증가
- (4) 기저효과 : 1월과 2월의 월등한 고용성과는 설 특수와 기저효과에도 일정 부분 기인
- (5) 기타 : 제조업 및 대규모 사업체의 꾸준한 고용성과

⊙ 2014년 7월 고용동향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신규채용 감소 지속

- 근속기간 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 수가 8만 3천 명 감소
- 이는 2013년 9월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보이던 신규채용이 4월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5월에 큰 폭으로 감소(23만 4천 명)한 데에 이어 6월과 7월에도 지속되는 것으로서 주목할 필요
-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 감소는 상용직(4만 8천 명 감소)에서도 관찰되고 있음에 유의

⊙ 부문별 분석을 통해 고용성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봄

⊙ 연령별로 볼 때, 여전히 50세 이상 연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청년층 고용이 지난 해 9월에 이어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

-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50세 이상 연령층(57만 2천 명 증가)에서 취업자 수가 38만

2천 명 증가하여 여전히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나(50대 20만 3천 명 증가, 60세 이상 17만 9천 명 증가), 증가폭은 둔화

- 청년층 취업자 수는 청년 인구감소(6만 명 감소)에도 불구하고, 10만 7천 명 증가하여 7월의 고용증가세 회복에 크게 기여

  ※ 청년층을 구성하는 세부 연령집단별로 보면, 10대 취업자 수가 증가(2만 3천 명)하였고, 20대 전반(20~24세)의 고용이 11만 명 증가한 반면, 20대 후반(25~29세)의 고용은 2만 6천 명 감소하였는데, 이는 주로 20대 후반 연령층 인구감소(4만 6천 명 감소)와 관련

⊙ 여성의 고용성장 주도 지속

- 7월 들어 남성 취업자 수가 28만 7천 명 증가하여 여성 취업자 수 증가(21만 8천 명 증가)를 능가하고 있으나, 여전히 증가규모가 커 여성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
- 여성이 2013년 7월부터 전체 고용성과를 주도하다가 지난 3개월(2013.12~2014.2) 동안 남성이 여성을 추월하였으나, 3월 들어 다시 여성 주도로 복귀하였으며 4월과 5월에 이어 6월에도 여성이 남성을 추월
-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여 고용증가를 주도하는 현상은 최근의 고용성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

⊙ 고용률의 증가폭은 3월 이후 둔화되고 있으나 7월 들어 다시 증가하였으며, 대부분 연령집단에서 고용률 상승(※ 남성 60세 이상과 여성 20대 후반 및 여성 40대에서 고용률 감소)

- 2012년 1월 이후 계속된 고용률 감소 추세가 2013년 1월 이후 증가 추세로 반전되었다가 2014년 3월부터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며, 7월에 다시 증가로 반전
- 남성 고용률이 72.2%로서 0.7%포인트 상승하였으며, 여성 고용률은 50.4%로 0.5%포인트 상승
- 전 연령층의 고용률이 상승한 가운데 50대 고용률 상승 추세도 지속(50대 고용률 74.5%로 전년동월대비 0.7%포인트 상승)

⊙ 상용직 주도의 고용증가세 둔화 및 임시직 증가폭 확대

- 상용직 종사자가 35만 1천 명 증가하여 여전히 고용증가를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둔화되었으며, 임시직이 23만 5천 명 증가한 반면, 일용직은 5만 4천 명 감소하였고 비임금근로자도 2만 7천 명 감소
- 종사상 지위로 본다면 임시직 증가폭 확대가 7월 고용성과의 주요 요인

⊙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, 제조업도 여전히 크게 기여

- 농림어업을 제외한 여러 산업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38만 8천 명 증가하여 여전히 고용증가를 주도
- 서비스업 가운데 금융·보험업의 취업자 수가 4만 9천 명 감소하여 6월(4만 8천 명 감소)에 이어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, 도·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이 각각 10만 명 이상 증가

  ※ 금융·보험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어느 정도 회복한 이후 연도별로 등락하고 있는 가운데 올 해 4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, 감소폭이 증가
- 서비스업 가운데 특히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이 고용증가를 주도하여 왔는데, 7월에도 꾸준히 증가

  ※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 위주의 고용증가는 여성 주도의 고용성장 및 돌봄서비스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
- 반면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19만 1천 명 증가하여 고용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있으며, 건설업에서 5만 7천 명 증가

⊙ 제조업을 비롯한 많은 산업들에서 신규채용 감소

- 도·소매업의 신규채용이 다소 증가한 반면, 제조업 신규채용이 6만 9천 명 감소하는 등 여러 산업들에서 신규채용 감소

⊙ 노동시장의 역동성 저하 지속

- 이직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채용 감소로 입직도 4개월 연속 감소하여 노동시장의 플로우 규모 둔화

⊙ 중소규모 사업체 주도의 고용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규모 사업체 고용도 안정적인 증가를 지속

- 중소규모 사업체의 취업자 수가 39만 명 증가하여 최근의 중소규모 사업체 주도의 고용성장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둔화되던 증가폭도 회복
-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도 11만 5천 명 증가하여 취업자 증가에 상당히 기여
- 취업자의 대부분(90% 이상)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2013년 상반기 동안 대기업이 고용증가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,
- 2013년 하반기 들면서부터 다시 중소규모 사업체가 고용증가를 주도하기 시작
- 대규모 사업체는 고용성과에서 최근 2년가량 큰 등락 없이 선전을 거듭

⊙ 고용증가가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, 공공부문 취업자 수는 감소

- 6월 공공부문 취업자 수 9천 명 감소

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

⊙ 2014년 5월 명목임금(임금근로자 전체)이 2.0% 증가하였고 실질임금은 0.3% 증가하여 전년동월 실적에 미달

- 4월 특별급여가 감소(전년동월대비 11.5% 하락)한 데에다 정액급여 상승률도 3.3%로 낮아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 상승률이 전년동월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 지속
- 2014년 6월 협약임금 인상률(임금총액 기준)은 4.7%로서 전년동월(4.1%)에 비해 상승하였으나, 임금결정 진도율이 17.5%로 전년동월의 37.7%에 비해 미진
- 특히 올해 협약임금 인상률은 예년과 매우 구분되는 모습

⊙ 2014년 1~5월 평균 명목임금(임금근로자 전체)은 2.5% 상승하여 전년동기(4.4% 상승)에 비해 부진한 상황이 지속

- 상용근로자의 1~5월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도 2.7%로 전년동기의 4.3%에 미치지 못하는데, 이는 정액급여 상승률이 낮은 데에 주로 기인(초과급여 상승률은 전년동기보다 높으나, 특별급여 상승률은 전년동기 실적에 미달)

- 실질임금(임금근로자 전체)은 1.2% 상승하여 전년동기의 2.0%에 역시 미치지 못하는데,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보다 낮은데도 명목임금 상승률이 낮기 때문

⊙ 2014년 5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보다 12.9시간 감소(-7.3%)하였으며, 1~5월 평균 근로시간은 3.3시간 감소

- 월력상 근로일수가 2일 감소하였는데 불구하고 상용 초과근로시간은 0.8시간 증가하였으며, 1~5월 월평균 상용 초과근로시간도 0.7시간 증가

최근 해외 고용동향

⊙ 고용률로 볼 때, 한국의 고용률은 OECD 평균에 근접해 있으며, 유로존보다 우수하나, 미국이나 일본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

- 한국과 미국 및 일본의 고용률(15~64세)은 최근 수년 동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, 유로존의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미약한 회복세
- 청년(15~24세)의 경우, 미국의 청년 고용률이 가장 높고, 일본 그리고 유로존 순인데, 미국과 일본의 청년 고용률은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유로존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
- 미국의 고용률은 더디게 회복되는 추세이나, 7월 들어 68.0%를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0.1%포인트 감소
- 한국의 청년(15~24세) 고용률은 유로존의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나,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되는 모습

⊙ 실업률로 보면, 유로존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최근 들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, 한국과 일본의 실업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, 미국은 중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달

- 한국과 일본의 실업률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, 경제전체 실업률은 한국이,

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일본이 보다 낮은 상태 지속

- 최근 들어 일본의 청년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는 반면,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양자의 격차가 확대
- 미국의 7월 실업률이 6.2%로 전월에 비해 0.1%포인트 상승하였으나, 전반적으로 하락세
- 반면 유로존의 실업률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으나, 6월 들어 11.5%를 기록하여 미소하게 하락하는 모습

⊙ 유로존 가운데 독일의 고용성과가 여전히 우수한 반면, PIGS 국가들의 고용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지속

- 독일의 고용률은 2014년 1분기에 73.4%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2014년 1분기 청년 실업률은 8.1%에 불과(경제전체 실업률은 5.2%)하며, 2014년 6월 실업률도 경제전체 5.1%, 청년 7.8%에 불과
- 반면 스페인의 경제전체 실업률은 2014년 6월에 24.5%이며, 청년 실업률은 53.5%, 그리고 2014년 1분기 경제전체 고용률은 55.3%이며 청년 고용률은 16.6%에 불과
- 그리스의 2014년 1분기 경제전체 실업률은 27.4%로 높고, 청년 실업률도 56.3%로 매우 높으며, 월별로 보더라도 2014년 5월 실업률이 경제전체 27.1%, 청년 54.5%로 높은 상황인 반면, 2014년 1분기 고용률은 49.0%에 불과하고, 청년 고용률은 12.1%로 열악